

주거 내 배설 및 목욕공간의 변천과 일상생활에 대한 미시적 고찰

A Microscopic Review on the Changes in Lavatory/Bathroom and Daily Lives in Korean Housing

전남일*
Jun, Nam-Il

양세화**
Yang, Se-Hwa

홍형옥***
Hong, Hyung-Ock

손세관****
Sohn, Sei-Kwan

은난순*****
Eun, Nan-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e the changes in lavatory/bathroom and daily lives to clarify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housing through everyday affairs and adjustment behaviors after the period of opening the port with microscopic perspectives. For the purpose, reviews were focused on hygiene and cleanliness in lavatory/bathroom and the changes in such areas. Secondly, how the process of conflict and settlement due to such changes had been approached since modernization was studied. Research method used were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the follows: From the perspective of 'hygiene' and 'cleanliness', which we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modernization, the lavatory/bathroom culture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might be considered very unsanitary and despicable. The actual problems encountered by the inhabitants, however, might be less significant than those discovered by the pioneers at that time. Despite such reality, housing adjustments through renovations of the bathrooms and lavatories by some classes implied the need for housing, which had been inhibited in themselves. Also, it was found that the family conflicts due to cultural and life style differences existed in each time period.

Keywords : modernization of housing, lavatory/bathroom, microscopic perspectives, daily lives

주요어 : 주거 근대화, 배설 및 목욕공간, 미시적 고찰, 일상생활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근대라 함은 일반적으로 갑오경장 이후 신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한 1876년의 개항을 그 기점으로 한다¹⁾. 본 고에서는 주거의 근대화를 단순히 서양풍 주택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근대화를 논함에 있어 우리의 주거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기 까지 그 변화과정과 결과로서의 주거에 주목하고자 한다(전남일, 2003).

근대적 사회체계의 개편과 함께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상하수도 등이 갖추어지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반성과 변화에 대한 관심은 주거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다.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²⁾되었던 1900년대 초부터

주거의 근대화는 '개량', '개선', '문명화', '신생활' 등의 용어로 대변되었다. 주택개량에 대한 논의는 김옥균 등 개화파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920년대 지식인과 건축가들에 의해서였으며, 이들이 역점을 두었던 것은 개화파와 마찬가지로 '위생'과 '청결한 생활'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배설과 목욕공간은 부엌과 더불어 위생과 건강을 실현시킬 공간으로 주목되었다. 이후 1960년대부터 산업화 시기의 기능주의와 합리주의라는 가치를 앞세운 공동주택의 확산은 이들 공간에 대한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였다.

주거사 서술은 물리적인 주택의 변화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생활상의 변화까지 읽어내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주거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서술도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설비의 개량이나 청결상태 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포괄적인 파악이 어렵다. 주거변화를 유도한 배경에는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거주자의 일상생활변화에

*정회원(주저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교수. Ph.D.

***정회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이학박사

****정회원,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원. 이학박사

본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 분야지원사업(과제번호:KRF-2005-079-BS0105)으로 이루어졌음

1) 조혜정 외(1997)는 한국의 근대형성 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전통적 농경국가사회에서 근대화 과정인 식민주의적 근대형성기(조선조말~1950년대)와 개발주의적 근대(1960년대, 1970년대), 후기산업사회(1980년대 이후)로 진행된다고 규정하였다.

2)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창간되면서부터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임창복, 1989)고 보고 있다.

대한 요구와 의식의 변화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사 속의 평범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존재로 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미시적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 배설 및 목욕공간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과 그의 조절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변화와 의미를 미시적 시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문제는 첫째, 주거의 근대화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위생’과 ‘청결’의 실현 공간이었던 배설과 목욕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조명하는 것이다. 둘째, 물리적 변화에 대한 가족원의 의식 변화와 행태는 어떠했으며, 주생활 상의 갈등과 정착과정이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개항이후부터 70년대까지로 설정하였다. 근대화로 대변되는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여전히 지배적이었던 생활방식과 공간은 전통적인 것이므로 전통적인 배설과 목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근대화 시기의 일상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바, 아파트 문화로 확대, 정착되는 80년대 이후는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시기적 구분은 배설과 목욕공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1. 전통주택의 실태, 2. 개화기의 쟁점, 3. 개량의 과도기, 4. 근대적 위생공간 도입으로 나누어 서술된다.

본 연구는 도서관 서베이를 이용한 문헌고찰법을 이용하였으며 당시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구술자료, 고문헌, 대중매체, 연구논문 등의 자료들을 서술에 이용하였다. 아울러 당시 생활상에 대한 직접 증언 등 현지연구도 병행하였다. 구술자는 경남 함양군 개평리 김O규 할머니, 전북 보절면 김OO 할머니, 안동 하회마을 북촌댁 종손이다. 본 연구는 주거 내 배설 및 목욕공간에 속하는 변소, 욕실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시설·설비의 발달과 배설 및 목욕공간의 변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의식과 공간과의 상호관계 변화를 미시적 시각으로 조명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미시적 시각은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개별가구로부터 주거현상을 파악하려는 접근방법이다(Morris E.W. and Winter M., 1978; 홍형욱, 2005). 이 관점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II. 본 론

1. 전통주택의 감춰진 공간과 생활, 뒷간과 목욕

전통주택에서 배설을 위한 공간은 ‘뒷간’이나 ‘축간’ 등의 용어로 표현되었다. 대개 뒷간은 눈에 잘 띄지 않

는 담벼락 근처나 대문 밖에 두었는데, 뒷간의 위치와 중요성은 당시 농경 위주의 경제 방식 뿐 아니라 유교 문화의 지배를 받던 사회적 이념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사회의 농경문화에 있어서 뒷간은 농사에 필요한 퇴비를 생산, 공급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배설물을 다시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생태적 순환체계이다. 위치상 되도록 거처하는 곳과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것은 배설물의 재가공 측면이 더 강했으나, 결국 위생이란 잣대로 보았을 때 뒷간은 불결하고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뒷간의 위치와 개수에 있다.

서유구(徐有矩)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뒷간을 만드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人家宜置三 一在內舍一在外舍一在垣外田疇之側 其在內外舍者 木柱板壁灰蓋

즉 살림집에는 축간을 세 개 설치해야 하는데, 하나는 안채에 두고 하나는 바깥채에 두며, 하나는 담장 밖의 발두둑 곁에 두도록 하였다. 안채와 바깥채에 있는 축간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널로 벽을 만든 다음 지붕을 덮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내외(內外)사상이란 가족내적 제약과 신분 사회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배설행위라는 일상생활에서 초차 남녀와 상하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거처하는 안채 주변에는 ‘내축(內厠)’을 두었으며, 사랑채 주변에는 ‘외축(外厠)’을 따로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하인들이 사용하는 ‘하인 뒷간’은 행랑채 바깥의 발두둑가나 담장 바깥에 두기도 하였다.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북촌댁에서는 집안사람 뿐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배설공간까지 배려하고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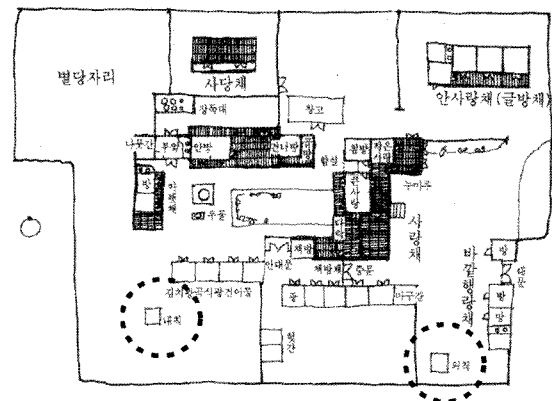


그림 1. 경남 함양군 개평리 하동 정씨 종가의 내축과 외축(자료: 홍형욱, 1992, p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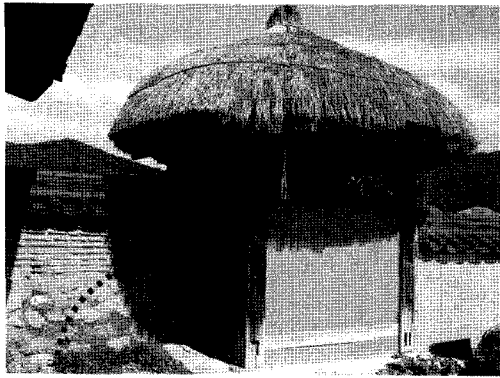


그림 2. 나그네를 위해 마련한 뒷간의 모습. 사람채의 외축(外廬)과 같은 지붕 아래에 있으나 내부를 둘로 나누어 그 중 하나를 바깥 골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언: 하회마을 복촌댁 종손OOO, 촬영: 2005.9)³⁾

배설행위는 주택 외부에서의 일상행위만은 아니었다. 배설행위는 남녀노소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각방의 내부 공간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주거생활양식은 공간의 전용성(轉用性)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각 방마다 식사에서 배설, 목욕에 이르는 일상생활을 모두 영위하였다. ‘요강’은 이러한 내부공간에서의 배설행위를 지원했던 도구 중 하나인 셈인데, 사용한 요강은 하인들이 뒷간에 가져가 비우거나, 직접 처리하였다.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으로 알려진 경남 함양군 하동 정씨 종가(정병호 가옥)에서 멀리 떨어진 뒷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조정의 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전형적인 사대부가로 알려진 이 고택의 책방채에는 마루 끝에 소변보는 곳을 두었다(그림 3 참조). 어느 시기에 생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교적 제약과 체면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한 것으로 보아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일상생활공간 근처에서 생리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조선시대에서 개화기까지는 유월 유두날부터 시작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욕하는 친욕 풍습이 있어, 마을마다 암물터에서 여인들이 목욕을 하였다(전완길, 1995)고 한다. 이처럼 위생을 위한 목욕행위는 주로 집근처 냇가에서 밤에 은밀히 행해졌으나 이것도 날이 추워지면 여의치 않았다. 주택 내에서의 목욕을 하는 공간을 ‘목욕간’이라고 하여 따로 둔 집도 있지만 대개 정지(부엌)에서 물을 데워 쭉그리고 하거나 곳간 안에 나무로 만든 큰 목욕통을 두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혹은 방 안에서 세수대야의 물로 간단하게 온몸을 닦아 내는 정도였다.

옛날에는 대야가 셋넷 된다구. 큰 대야 있죠, 그게 시숫 대야지. 그러면 발 씻는 대야가 또 따루 있어요. 아침에

3) 뒷간과 목욕에 관해 이야기를 해 준 두 증언자는 어렸을 적 집안 어른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증언하였다. 당사자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습속이 여전히 1900년대 이후에도 계속남아 있어 조선시대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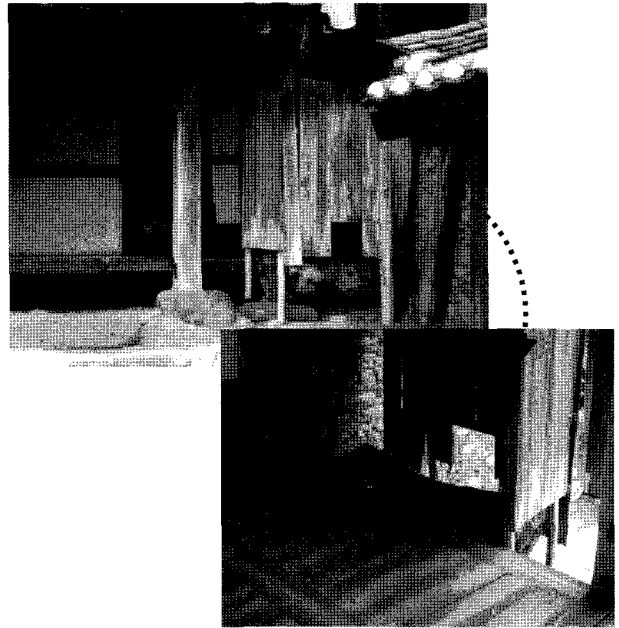


그림 3.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으로 알려진 경북 함양군 정병호 가옥(1570년대 건축). 전형적인 사대부가집인 이곳 책방채의 마루 끝에는 소변보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촬영: 2006. 1월)



그림 4. 농가 서민주택의 디딤돌 젓간. 예로부터 임신한 여성이 있는 경우 디딤돌 2개의 간격을 좁혀 두기도 했다는데, 혹시나 뒷일을 보다 아이가 나올까봐 이를 염려한 배려라고 한다. (사진과 증언: 전북 남원시 보절면 김OO씨댁, 촬영: 2005. 2월)

또 발 씻으시지. 시방으루 치른 목욕하는 심이여. 방이 이렇게 있시른 저 뒷목에 장지 단구 거그다 큰 대야에다 시숫물 갖다 놓구 양춧기에다 양춧물 받아 놓구. 시숫물 떠냈지, 손숫물 또 따루 냈지, 발숫물 따루 냈지. 그때는 발씻구 나시른 그거 내비리구 또 떠다 봐야 혀. 여자는 뒷물 해야 허니겐. 시수 한번 허시른 시숫물 다섯 번 떠야 혀, 다섯 대야.(이규숙, 1984)

전통사회 양반 부녀자의 삶을 구술한 이규숙의 묘사에

서 보면, 시부모님의 목욕을 대신하는 다섯 대야의 물을 떠다 놓아야 하는 생활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당시의 세수와 목욕 풍습을 엿볼 수 있다.

남자들은 대개 마을 앞 강가에 가서 먹을 감았지. 어릴적엔 겨울에 커다란 나무통을 정지에 두고 땀뻘 물을 부어 가끔 목욕을 하기도 하였구.. (증언: 하회마을 복촌댁 종손 000, 2005.9)3)

따라서 전통공간에서는 세면장이나 욕실의 개념을 찾기 어렵다. 이는 주택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목욕을 종교적인 차원의 의식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일상의 것으로 생활되지 못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목욕실의 부재를 생활행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결국 배설과 목욕을 위한 공간의 부재가 '위생'을 위협하는 제약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 서구적 위생관념의 도입과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초래된 것이었다.

2. 개항기 주거공간 개선의 쟁점, 위생과 청결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청결의 문제에 대해 늘상 더럽고 비위생적이라는 말로 기록하였다. 그들에게 비친 조선의 도시와 사람들의 위생상태는 서구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매우 열악했던 것이다. 개항 직후 조선을 방문한 비숍은 도시의 광경 중 하나로 개천을 묘사하였다. “넓고 양쪽으로 담장이 쳐 있으며 복개되지 않은 이 개천을 따라 검게 썩은 물이 악취를 풍기며 흐르고 있고, 한때는 자갈이 깔려 있던 하상에는 퇴비와 쓰레기가 떠올라 개천을 온통 덮고 있다. 사람들이 시달려 지친 남자들은 물을 길어 통에 담거나 악취 나는 물에서 옷을 빨고 있는 하층 계급의 여인들..(I.B.비숍, 1897)”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위생관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도시 뿐 아니라 주택 내에서의 생리위생공간은 개항 이후에도 전통적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문물의 소개와 신지식인들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목욕 및 배설공간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용어인 뒷간은 일제시대부터 수세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변소(便所)라고 불렀는데, 뒷간과 마찬가지로 냄새나고 불쾌한 공간이었다. 도시화라는 외적변수는 너른 마당을 축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거처와 떨어뜨려 마당 한 칸에 변소를 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설비는 개선되지 않은 채 거처 가까이 두게 된 변소로 인해 가족들은 불쾌한 냄새를 견뎌야 했다.

당시 욕실과 변소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였던 것은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이 개별 주택의 위생설비 개량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집에서 했던 목욕 방식과 공중목욕탕에 대해서는 다음의 증언을 통해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공중 목욕탕에는 해방허구 나서 가기 시작했지. 시내에 몇 개 없었어... 큰 집 살 때는 집에서 목간통을 해 놓구 살았으니까 안 가구 해방허구 나서 집이구 뛰구 다 없어지니께 겨울에 좀 땀기구. 그래두 저기 물 속에는 못 들어갔어. 이렇게 텀병 들어가구 텀병 들어가면 “아이, 저거 따뜻한 물에 가면 오줌들 나오겠지?” 그래져서. 이렇게 보면 비눗물이 뜨잖아. 나는 목욕탕엘 가문 저 수도 구녕 앞에서 고기서만 씻구 나와. 고기 들어가기가 싫어서(이규숙, 1984).

「독립신문」에는 ‘목욕집(공중탕)’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설이 실리는가 하면, ‘공립뒷간(공중변소)’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1896.6.27, 1899.3.7)도 제기되었다(김순일, 1982 재인용). 이는 각 주택의 위생설비가 매우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우고자 한 것이다.

목욕공간의 부재는 목욕행위의 비밀상화를 더욱 부추겼지만, “목욕=위생”을 강요하지 않았던 전 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있어 주거욕구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위생에 대한 각성의 글이 끊임없이 신문 등을 통해 소개 되었으며, 대중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공중탕과 공중변소 설립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건축가 박길룡 등은 위생적인 서구주택의 욕실과 변소 설비를 소개하면서, 개별 주택에서의 생리위생공간 계획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우리 在來便所는 不潔하다하여 멀리 떼어놓고 멀리 있는 便所의 不便을 이기지 못하여 방안에 便器 요강을 두는 것은 어는 點으로 보든지 非衛生的인 것은 事實이다. 그러면 便所는 될 수 있는대로 다니기에 便利하도록 갖가 옮겨 부쳐두고 清潔하게 할것이다. 在來式 住家를 보면 舍廓같은 것은 相當하게 設備한 집이라도 그 便所는 보잘것 없이 不潔하여 그 住家의 均等을 잃게 되었으니 마치 비단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것과 다름이 없다.(박길룡, 1935)

주택내에 생리위생공간을 두었던 당시 일본식 집을 구경한 이들은 “변소가 따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좋았고, 특히나 좋은 것은 목욕탕이었다.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희한하고도 기막혔던 것이다”(조정래, 1995)고 찬사를 보냈다. 외부공간에 위치하던 변소와 목욕공간의 부재에 대해 불편함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농촌의 경우도 집안에 목욕공간을 들이고자 하는 조정행위는 시설·설비의 발달 여부를 떠나, 전통적인 목욕문화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 쉽게 변하기 어려웠다. 결국 도시에 비해 농촌은 적극적인 조정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에 적응함으로써 위생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1933년에 태어나 농촌 양반가 며느리로 시집 온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당시 목욕문화를 엿볼 수 있다.

내가 목욕한 이야기를 할까? 목욕통이 없어서... 옛날에 소를 키우면 소죽술이 굉장히 커. 고마 머슴아들 돈을 갖다 한 200원을 주면 술 씻어버리고 저녁에 거기다가 물로 뜨뜻하게 해놔야... 인자 물 뜨사주면 거 앉아서 내가 짚을 요래 들들 말아가지고, 거 앉아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씻었어. 내가 씻던 습관이 들어가지고... 비누칠은 문한다, 또. 머리만 밖에서 감지. 왜냐하면 그 뜨신 물을 소 준다고 비누칠을 못하게 해. 그러니 무슨 때가 지겠어. 그래도 뜨신물에 뜨갔다 오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지. (김O규 구술, 2006.01)

하지만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의 변혁은 주거의 근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변소와 욕실은 “위생의 개선 및 합리화 추구”라는 문명과 계몽의 이념 아래 개선되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전남일, 2003). 주택 내부로 ‘위생’ 개념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상하수도의 공급 등 사회기반시설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했고, 계급사회가 붕괴되면서 일부 중인주택에서는 사당 등 주택 일부를 개조하여 목욕탕을 들이는 파격적인 행위가 이 시기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조의 전통적인 주택이 양반 중인 서인을 막론하고 목욕간에 대한 건축이 없었던 관계로 광이나, 부엌 같은데서 물을 그릇에 담아놓고 목욕을 해 왔던 것이다. 특히 부녀자들 중에 일부는 조용한 밤에 집안의 뒤뜰의 우물가에 나와 하수(下水)를 한 바, 한국에 들어온 일인들이 이를 몰래 숨어서 구경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중인 계급은 집안에 건축하였던 조상의 위패를 모셨던 사당을 목욕간으로 개축하였다(이규태, 1968)

개화기에 나타난 유교문화와 신분사회의 붕괴는 전통주택에서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고 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개조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당시의 이 같은 변소나 목욕간의 개조는 일부이긴 하지만, 가구의 주거조절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과거 불편함을 감수하며 주택에 ‘적응’하고 살던 사람들이 변소나 목욕간의 개조라는 보다 적극적인 주거 ‘조정’으로 주거조절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3. 목욕실 및 변소 개량의 과도기와 일상생활변화

일제강점기에 배설 및 목욕행위는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지어진 일본식 주택 또는 일본식 절충주택을 통해 실내에 배치된 화장실이 소개되었으며, 일본식 목욕통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이후 일부 민간업자 주택에서도 재래식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오고 여기서 배변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서구문화와 생활개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상류계층의 ‘문화주택’에서의 배변 및 목욕 공간의 계획은 보다 가시화되었으며, 생활행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새로운 설비가 모두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기존의 사용방법과 다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다음의 일본식 철제 목욕통 사건은 새로운 기기와 위생생활 양식에 대한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깊은 철제 가마솥이었다. 물은 밑에서 때는 불로 가열되었다. 우리는 목욕법대로 목욕통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었다. 아구(아귀)가 맞지 않은 문과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피부온 물은 대단히 뜨거웠다. 유시국이 먼저 솔 안으로 도전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텐 다리를 붙잡고 뛰쳐나왔다. 그는 확실히 일본 목욕통에 익숙하지 않았다. 서양인인 내가 동양인인 그에게 그 동양 물건의 사용법을 설명해주었다. 목욕통은 나무 덮개로 덮여 있었다. 덮개를 밟고 서면 그 것이 가라앉으면서 바닥으로부터 몇 인치 위에서 자체적으로 고정된다. 밑에서 불을 때면 밑에서부터 피부가 데지 않을 정도로 물이 뜨거워진다(H.B.드레이크, 1930).

주택개량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유방, 박길룡 등은 변소를 적극적으로 주거공간 내부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박길룡은 변소에 대해 “위생적으로 그 구조를 개량하여 멀지 안이한 곳, 다니기 편리한 곳에 붓쳐놔고 신을 신지 안이한 대로 왕래하게 되도록 그 통로를 생각해야 한다”(김명선·이정우, 2003; 161-169)고 말했다. 그가 설계한 경운동 민씨가의 경우(그림 5 참조) 복도를 통해 북쪽에 위치한 변소와 욕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변화는 외부공간행위를 내부공간행위로 바꾸는데 일조하였으며, 동선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유교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녀 상하에 관계없이 하나의 변소와 욕실을 쓰도록 한 것은 강요된 측면이 없지 않아서 당시의 예법 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30년대를 절정으로 중류계층의 대표적인 주택으로 확산된 개량한옥의 경우, 생리위생공간은 전통주택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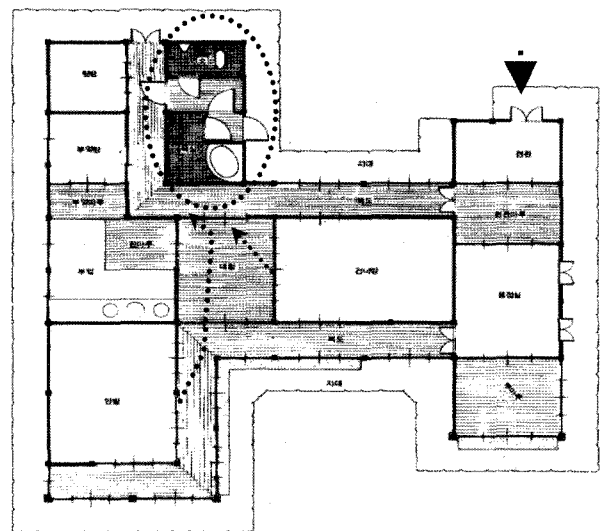


그림 5. 박길룡이 설계한 경운동 민씨가(지방민속자료 제15호). 인체 부엌 북쪽으로 욕실과 변소를 분리하여 실내에 끌어 들었다. (최재필(2001) 그림에 필자가 동선표시를 붙임)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변소는 행랑채 끝이나 대문 옆에 둠으로써 여전히 외부공간에 배치하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하류층을 위해 공급된 1940년대 영단주택의 표준설계도 보면, 욕실과 화장실은 주택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다(손세관, 2001). 甲, 乙, 丙, 丁, 戊형 중 변소는 甲형, 乙형, 丙형의 일부에서 욕실과 함께 개별 분리된 대소변기로 되었으며, 그 외의 유형에서는 대변기만 설치되며 주로 북측에 현관과 나란히 두었다. 戊형 주택의 일부는 변소가 살림채 내부에 없고 공동으로 마련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하류층의 주택으로 공급된 영단주택에서도 변소는 주택본채로 완전히 편입된 내부화된 공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여전히 신발을 신고 드나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단주택의 대량 주택공급의 시도는 주거평면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간의 표준화는 생활양식의 표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시기 목욕과 배설공간은 분리되어 계획, 건축되었으며 실내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가와 공공기관에 의해 제시된 주택개량과 표준화를 통해 목욕과 배설공간의 물리적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생활양식과 의식에도 변화를 유도하였다.

욕실과 변소의 주택 내 위치변화 뿐 아니라 수세식 변기와 세면대, 욕조와 같은 설비의 변화는 생활습관 변화와 청결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어 변화는 서서히 오지 않았으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당황스러운 경험들로 채워졌다. 젊은 시절(임오년, 1942년) 처음 수세식 변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겪었던 충격을 한 노인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었다.

변소 처음 드가 가지고 시골선 그런 변술 못 봤거든- 뭐 이래 빠죽한 게 달렸는데 뒤를 보고 나오다가 그걸 한번 잡아당기어 마 팔팔 물소리가 나서 얼마나 놀랐든동. “아이구, 내가 뭘 일을 저질렀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한참 있다 소리가 덜 나데. 가슴이 후다닥후다닥 거릿제. 그래 물어 보이 화장실이 본데 그렇다 그래...(성춘식, 1990)

상류주택의 경우 남녀와 상하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존재하였던 변소는 신분·남녀와 상관없이 한 개의 공간으로 통합되었으며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유도되었고, 화장실 사용을 둘러싼 갈등과 적응문제를 짐작할 수 있다.

4. 근대적 위생공간 도입의 갈등과 정착

근대적 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양반의 내외문화도 변화할 수 밖에 없어 사랑채를 버리고 안채로 합류하면서도, 안방으로 가지 못하고 문간방을 고쳐서 사랑방으로 사용하던 사례(홍형욱, 1992)에서 문화규범과 시차적 괴리를 가지면서 가족규범이 변화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규범과 가족규범간의 괴리와 갈등은 방 뿐 아니라 배설 및 목욕의 기능을 갖던 생리위생공간의 변화

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화장실이란 말은 서양에서 개발된 수세식 양변기가 들어오면서 씻는 곳과 용변을 보는 곳이 수도배관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면서 붙은 서구적 개념이다. 임창복(1989)에 의하면, 화장실 공간이 처음으로 주택 내부로 들어온 것은 1941년 영단주택이 시초였고, 59년 개명아파트에서는 욕조와 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현관 옆에 설치되었다. 초기의 화장실은 세면기가 없고 욕조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 욕조를 먼저 마련해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되, 세면은 대야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공간과 설비적 제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배설 및 목욕행위의 정착 과정에서 보여지는 전통적 생활양식의 일부 수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 속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주거조정하고자 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서민주택의 경우,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세수대야를 대신하지 못하는 세면기를 떼어 버린다거나, 빨래 등의 가사노동 공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화장실에는 용변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 변기와 세면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용변 이외의 세면이나 빨래 등의 작업에는 상당히 좁은 편이다. 따라서 세면기를 제거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떼어낸 세면기를 화장실의 물탱크 위에 얹어 놓거나 베란다 구석 또는 외부의 베란다 밑에 버려둔다. 또한 세면기 밑에 수도꼭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빨래를 할 때나 대야에 물 받을 때 편리하게 하며, 욕조가 없으므로 샤워를 하기 위해 샤워꼭지를 설치하기도 한다(건축사, 1991).

지금과 같이 세면기, 욕조 그리고 양변기를 모두 갖춘 ‘욕실’은 1962년 마포아파트가 처음이었으며(그림 6 참조), 변소가 퍼내기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뀐 것은 아파트 건설이 계기가 되었다⁴⁾. 초기의 아파트 입주자들 중에서도 양변기 사용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여러 가지 문제와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집집마다 하나씩만 설치된 서양식 양변기는 안변소와 바깥변소가 분리되어 있던 전통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가족들에게 더없이 불편한 존재였다. 며느리가 앉던 변기에 시아버지가 앉아 용변을 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강요된 처사였으며, 이로 인해 바깥으로 볼 일을 보러 나가는 가족원이 생기기도 하였다. 또 양변기 위에 올라가 쭈그린 자세로 볼 일을 보곤 하였는데, 이는 양변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사용법에 익숙치 않아 나타난 행태였다.

저쪽에 사랑에 아버님 계시니까 그지? 아버님 화장실에 가기 전에 내 항상 변비가 걸려서. 화장실에 가지를 못해

4) 수세식 변소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반수세식 변기가 개발되었다. 1965년 세워진 일부 외인주택과 화곡단지내 국민주택내의 변소는 상수도에서 직접 버려지는 오수를 저수탱크에 모아 두었다가 배변 후 변소 내에 설치된 패달이나 핸들을 작동시켜 그 물을 분뇨 세척용수로 사용하였다(경정숙·신경주,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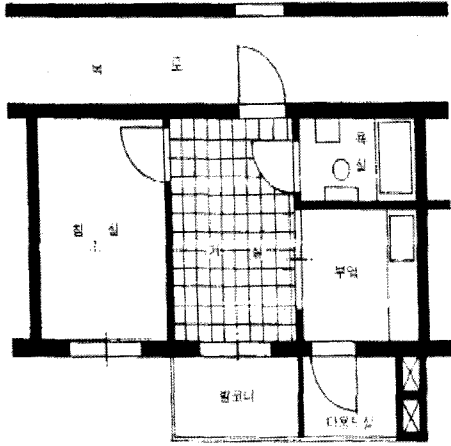


그림 6. 마포아파트 9평형(1962)에는 욕실에 양변기와 세면기, 욕조가 설치되어 있다.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0년사」, 1979)

서지. 아버님 안계실때는 화장실 가지만은.... 요새 사람 그 래 살지는 안할까야(김O규 구술)

백색 위생기기는 부의 상징이자 서구적 문화생활을 영 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었다. 그러나 입식으로 바뀌어 버린 양변기에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었으며⁵⁾, 생활문화의 차이로 혼란을 겪었다.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한 잡지의 풍자만화에서처럼(그림 7 참조), 위생공간이 물리적으로는 단시간에 바뀌어 간 반



그림 7. 서구식 생활, 수세식변소 (여원 1963.7)

5) 양변기의 사용에 있어 적응문제는 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글은 양변기 도입 초기, 프랑스 학생들이 그 사용법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수세식 양변기 사용은 학습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리하여 파리 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양변기 위에 올라가지 말고 그 위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느라 애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문의 아래부분과 윗부분을 안이 보이게 뚫어 놓음으로써 관리인이 자기 자리에 앉아 학생들이 올바르게 볼일을 보고 있는지, 말하자면 아래 틈새로 두 발이 보이고 위 틈새로 머리가 전혀 안 보이는지 감시할 수 있게 했다”(야콥 블루메 지음, 박정미 역, 2005)

면 생활양식은 쉽게 변화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근대적 위생공간의 등장은 이미 익숙해진 생활습관으로 인해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새로운 적응 과정을 안겨주었다. 특히 근대적 위생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설의 편리함에 앞서 문화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공공시설의 화장실과 개별주택의 화장실 수준의 차이 역시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배변환경의 상이함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 화장실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아파트에서와 같이 수세식 내지는 걸터앉는 좌식(座式) 변기를 설치한 집이 늘어가자,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문제거리가 일어나 교사를 당황하게 한다. 학교변소 기피증이다...학교변소 기피증을 느끼는 아동들은 그 상이한 구조에서 우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고, 또 학교의 시멘트변소와 가정의 흰 타일 변소의 차이에서 오는 색깔의 변화로 인해.... (현대주택, 1978.6)

어려서부터 양변기에 익숙해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변소에 익숙했던 노인들 역시 화장실은 갈등의 공간으로 작용했다.

처음 아버지가 누님집에 와서 겪은 고통은 화장실 사용이었다. 70년간 시골의 재래식 변소에 익숙해 있는 아버지는 아무리 용변이 급해도 좌식 양변기에 앉기만 하면 변의(便意)가 싹 달아나는 것이다. 아버지의 양변기 거부반응은 결국 오래 용변을 못 보다 보니 변비가 됐고...(현대주택, 1987.8)

아파트의 도입은 화장실의 실내화와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주거의 전반적인 생리위생공간의 질적 수준은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입과정에서 가족상황과 생활패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물리적 환경만이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적응할 시간을 외면당한 채 일상생활의 질서를 위협받고 부적응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개항기 이후 본격화된 주거의 근대화 일면을 배설 및 목욕 공간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통해 조명하였다.

위생관념의 생성은 문명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주택은 단지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형태와 조직은 그것이 속하는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적합

한 환경으로 창조되어야 한다(Rapoport, 1969). 하지만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변혁은 주거의 근대화를 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변소와 욕실은 ‘위생의 개선 및 합리화 추구’라는 문명과 계몽의 이념 아래 개선되어야 할 대상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다.

근대화의 주요요건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위생’과 ‘청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배설 및 목욕문화는 매우 불결하고 저급하게 비춰졌다. 개화기에 등장한 주택개량 중 변소 등 위생설비의 논의는 서구적 위생관념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실제 거주자가 느끼는 위생과 청결 문제는 개화기의 선각자들이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심각했으며,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다. 일부 계층이 사당을 목욕실로 개조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거 조정을 함으로써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주거욕구를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소수에 의해 시도된 것이며 보편적으로 수용되지도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선을 보인 위생설비와 변소 및 목욕공간의 내실화는 생활양식 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설비개선 측면에서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화가 추구된 것이다. 미시적 시각으로 가족원의 생활상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는 강요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의식과 일상생활 문화 간의 괴리로 인해 가족이 겪는 갈등은 각 시기마다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쨌든 근대화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공간계획의 변화로 인해 배설 및 목욕공간의 진화는 시작되었으며, 그 사이 문화적 충격과 생활상의 조정과정을 통해 물리적 환경과 생활양식이 서로 적응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1. 건축사. 1991.10월호. 통권270호. “우리네 생활에 맞는 집합주거 설계- 서민아파트의 현장으로부터 본다”.
2. 김명선·이정우(2003), ‘中部地方家構法’에 대한 박길룡의 평가와 개량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7), pp.161-169.
3. 김순일(1982), 개화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권 106호, pp.27-31.
4.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5. 박길룡(1935), 朝鮮住宅을 어떻게 改良할까, 신동아, 5권 8호. pp.48-49.
6. 성춘식(1990), 이부자리 피어 놓고 암만 바래도 안 와, 뿌리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
7. 손세관(2001),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225-315.
8. 야콥 블루메 저, 박정미 역(2005), 화장실의 역사, 이룸.
9. 여원, 1963.7.
10. 이규숙(1984), 이 ‘계동마님’이 먹은 여든살, 뿌리깊은나무.
11. 이규태(1968), 개화백경(42), 조선일보 1968.9.17.
12. 이동범(2000), 자연을 꿈꾸는 뒷간, 들녘.
13. 임창복(1989), 근대화와 주거문화의 변동, 공간, 통권 262호. 1989.6월, pp.110-117.
14. 전남일(2003), 문명화이론을 통해 본 개항기의 주거와 그 근대성의 재조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pp.25-40.
15.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도서출판 장원.
16. 정경숙·신경주(1993), 우리나라 변소의 역사적 변천과 그 현황, 한국주거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4권, pp.28-32.
17. 조정래(1995), 아리랑, 제1권 3장.
18. 조혜정 외 6인(1997), 성, 가족,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접근-, 서울:집문당.
19. 최재필(2001), 서울주거의 사회문화적 특성,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 홍형옥(1992), 한국주거사, 민음사.
21. 홍형옥(2005), 근대이후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 근대이후 삶과 주거변화, 2005 심포지움자료집, 가톨릭대학교 한국근현대연구팀, pp.1-25.
22. 현대주택(1978.6), 아파트 열쇠를 건 아이들, pp.336-342.
23. 현대주택(1987.8),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시부모와 며느리 정신질환 늘고 있다, pp.206-211.
24. A. Rapoport(1969), Housing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25. H. B. 드레이크 지음(1930). 신복룡·장우영 역주(2000), 한말 외국인기록 23; 일제 시대의 조선생활상, 집문당.
26. I. B. 비숍(1897). 신복룡 역주(2000), 한말 외국인 기록 21: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집문당.
27. Morris, E.W.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Hohn Willey & Sons.

(接受: 2006. 6. 21)